

광주 FC 에이스 나상호, K리그2 '최고 별'

16골 1도움... MVP·득점왕·베스트 11 '3관왕'
AG 출전·벤투호 승선 A매치 데뷔 '최고의 한 해'
경남 FC 말캉 K리그 1 MVP 올라

광주 FC의 나상호가 K리그 2 '최고의 별'로 빛났다.

나상호는 3일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 대상에서 K리그2 MVP를 수상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나상호는 득점왕과 베스트 11도 수상하는 등 '3관왕'에 등극하며 세 차례나 단상에 올랐다.

올 시즌 31경기에 나온 나상호는 16골 1도움을 기록하며 프로 두 번째 시즌 만에 광주의 에이스가 됐다.

나상호는 안산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팀의 5위를 확정하는 골을 넣으며 안양 알렉스(15골)의 추격을 따돌리고 득점왕을 확정했다. 1996년 8월 12일생인 나상호는 역대 K리그 최연소 득점왕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꾸준하고 강렬했던 활약으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 수상자 란에도 나상호의 이름이 쓰였다.

올 시즌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대표로 나서 '금메달리스트'가 된 나상호는 최근에는 벤투호에 승선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나상호는 "올 한해에는 축구를 시작하면서 꿈꿔왔던 많은 일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었고, 그 중심에 K리그 2 MVP라는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다"며 "항상 제 옆에서 1번으로 묵묵하게 지켜주신 저희 아버에게 사랑한다는 말씀과 매 경기 저를 보러 와주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MVP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저의 소속팀 광주 FC 구단 모든 분과 감독님 코칭스태프, 동료들이 잘 도와주었기에 이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올 시즌 '광주'로 함께한 이들에게 공을 돌렸다.

나상호는 올 시즌을 발판삼아 더 큰 선수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이루었던 목표와 꿈꿔왔던 일들이 저에게는 앞으로 더 큰 목표를 이루고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양분이라 생각한다. 나태해지지 않고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 축구에 영향력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K리그 베스트 11에는 나상호, 키주 두 골잡이와 함께 황인범(대전) 호물로(부산) 안현범(아산) 이명주(아산) 이상 MF, 김문환(부산) 서보민(성남) 윤영선(성남) 이한샘(아산-이상 DF), 김영광(서울 이랜드-GK)이 선정됐다.

이번 시즌 9차례 골을 도운 호물로는 도움왕까지 2관왕이 됐다. 김영광은 전 경기 전 시간 출장 특별상도 받았다.

감독상은 K리그 2 우승을 지휘한 아산 무궁화의 박동혁 감독에게 돌아갔다.

한편 경남 FC의 '특급 공격수' 말캉은 K리그 1 MVP에 오르며 국내 프로 축구 사상 처음으로 1, 2부 MVP를 모두 수상한 선수가 됐다.

지난해 K리그 2 득점왕(22골)으로 MVP를 차지했던 그는 1부로 승격된 올 시즌에는 26골을 터뜨리며 다시 득점왕과 MVP가 됐다. 말캉은 베스트 11까지 3관왕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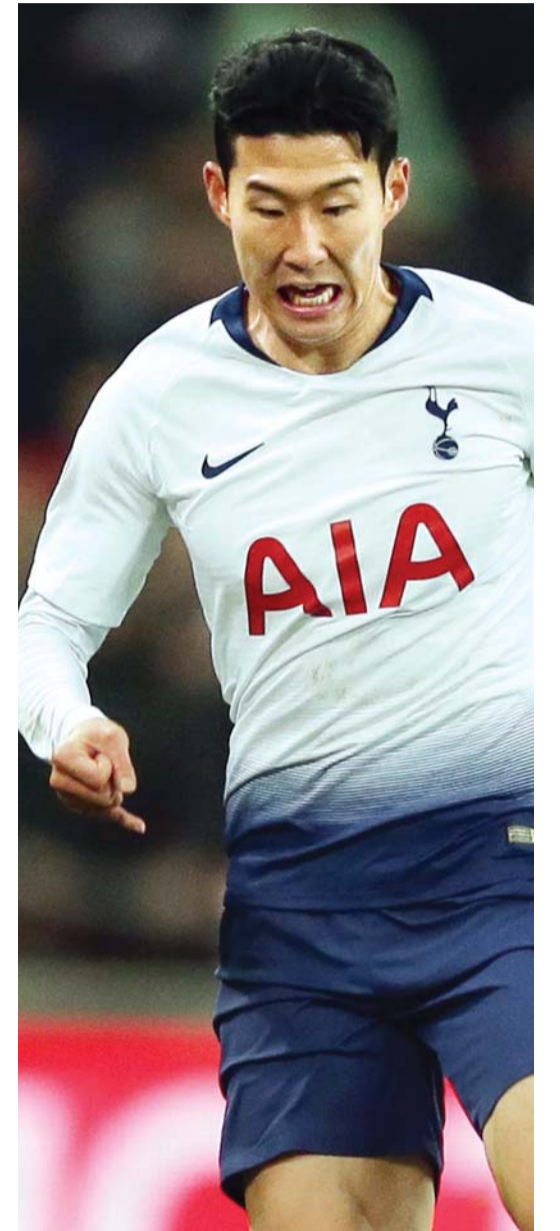
최고의 신인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은 울산의 한승규가 받았다. 올 시즌을 끝으로 중국 슈퍼리그 텐진 취안젠으로 떠나는 전북 최강희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단상에 올라 작별인사를 고했다.

한편 K리그1 베스트 11는 말캉과 주니오(울산-이상 FW), 네게바·최영준(이상 경남) 아길라르(인천) 로페즈(전북-이상 MF), 홍철(수원) 리차드(울산) 김민재·이용(이상 전북-DF), 조현우(대구-GK)로 구성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18 KEB하나은행 K리그 대상' 시상식이 3일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나상호가 K리그2 MVP를 수상,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제공>



총희무진 활약에도 손흥민 100호 골 불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스널을 상대로 총희무진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토트넘은 2-4로 역전패했고, 손흥민의 유럽 통산 100호 골 달성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열린 아스널과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34분 교체될 때까지 79분을 뛰었다.

해리 케인과 투톱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토트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나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지 못했다.

이날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잇단 수비 실수를 범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자초했다.

전반 10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토트넘 안 페르 통인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이를 아스널의 피에르 에메리크 오바메양이 선제골로 완성했다.

실점 직후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골대 오른쪽에서 돌파한 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골키퍼에 막혔지만 토트넘의 분위기를 살린 팀의 첫 슈팅이었다. 전반 22분엔 골대 왼쪽에서 위협적인 왼발 슈팅을 기록하는 등 손흥민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전방을 누볐다.

전반 30분 동점 골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 바깥에서 얻어낸 프리킥에서 시작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찬 공을 에릭 다이어가 헤딩으로 방향을 틀어 골대에 꽂아 넣었다.

손흥민은 전반 34분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돌파하다 수비수들과 충돌하면서 페널티킥까지 얻어냈다.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토트넘은 2-1로 역전했다.

하지만 후반 11분 아스널의 오바메양이 교체 투입 애런 램지의 패스를 받아 곧바로 동점 골을 쏘며 단숨에 분위기를 바꿨다.

손흥민이 후반 22분 아스널의 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대 정면에서 또 한 차례 강력한 슈팅을 날리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후반 29분엔 아스널 알렉산드르 리카제트의 슈팅이 다이어의 발에 맞고 골절대 골대로 빨려 들어갔고, 3분 후 아스널의 루카스 토레이라가 썩기 골까지 넣었다.

이날 영국 축구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7.5점의 평점을 부여했다.

손흥민은 6일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경기에서 유럽 통산 100호 골에 재도전한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새출발'

K리그2 강등...이달내 새 감독 선임

프로축구 2부 리그로 강등된 전남 드래곤즈가 내년 시즌을 대비한 팀 리빌딩 작업에 들어갔다.

전남 관계자는 3일 "김인완 감독대행이 시즌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이달 안에는 선임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은 올 시즌 K리그1(1부리그)에서

12개 구단 중 최하위로 추락하면서 K리그2(2부리그)로 자동 강등됐다.

전남의 2부 강등은 1995년 K리그에 참가한 이후 23년 만이다.

김인완 감독대행은 지난 8월 중순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한 유상철 전 감독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았지만 목표 내걸었던 1부 잔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이영하,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프로야구선수협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신인상은 강백호

승부 조작을 신고한 두산 이영하가 선수들이 인정한 '2018시즌의 선수'가 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은 3일 오후 2시 30분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8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을 열었다.

선수협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는 KBO리그 전체 선수들의 직접 투표로 선정되며, 이영하는 '올해의 선수상(모범상)' 수상자로 단상에 올랐다.

올해의 선수상은 성적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안팎에서의 품행과 함께 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는 프로선수다운 모습과 선행 등

을 보인 선수에게 주어진다.

올 시즌 40경기에 나와 122.2이닝을 소화한 이영하는 10승 3패 2홀드, 평균자책점 5.28을 기록해 팀의 정규시즌 우승에 역할을 했다. 또 승부조작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를 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올해의 타자상은 김재환(두산), 올해의 투수상은 김광현(SK)이 받았다. 김광현은 자기 선수상까지 두 개의 트로피를 쟁겼다. 신인상의 영예는 강백호(kt)가 안았다. '한국시리즈 MVP'에 빛나는 한동민(SK)은 기량발전상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골든 글러브' 전 포지션 도전

양현중·헥터·안치홍 등 11명 후보에...두산·LG 13명 최다

'황금장갑'에 도전할 선수들이 확정됐다.

KBO는 3일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골든 글러브 후보 9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포지션의 수비이닝(지명타자는 지명타자 타석 수)으로 선정 기준을 변경한 지난해 85명보다 12명이 늘어난 역대 최다 후보다.

KIA와 두산은 모든 부문에서 후보를 배출했으며, 두산과 LG가 각각 13명을 명단에 올리며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투수는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 이하,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후보가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가 된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나서야 후보에 올 수 있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이에 따라 투수 부문에서는 양현중·헥터(이상 KIA), 김광현·문승원·박종훈·산체스·켈리(이상 SK), 린드블럼·유희관·이영하·이용찬·후랭코프(이상 두산), 샘슨·정우람(이상 한화), 브리검·최원태·한현희(이상 넥센), 보니아·야엘만(이상 삼성), 김현중·레일라·오현택(이상 롯데), 소사·월슨·임찬규·치우찬(이상 LG), 금민철·니퍼트·피어밴드(이상 kt), 베랫·이재학(이상 NC) 등 31명이 후보가 됐다.

포수 부문에서는 KIA 김민식, SK 이재원, 두산 양의지, 한화 최재훈, 삼성 강민호, LG 유강남, KT 장성우 등 7명이 각축을 벌인다. KIA 나지완, 두산

최주환, 롯데 이대호, LG 박용택 등 4명은 지명타자로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린다.

1루수 부문에는 KIA 김주찬, SK 로맥, 두산 오재일, 넥센 박병호, 삼성 러프, KT 윤석민, NC 스크릭스 등 7명이 기준을 충족했다.

KIA 안치홍이 자리한 2루수 부문에서는 두산 오재원, 넥센 김혜성, 롯데 번즈, LG 정주현, kt 박경수, NC 박민우 등 7명이 후보에 올랐다.

3루수 부문 후보는 KIA 이범호, SK 최정, 두산 허경민, 한화 송광민, 넥센 김민성, 삼성 이원석, LG 양석환, KT 황재균 등 8명. 유격수 부문은 KIA 김선민, 두산 김재호, 한화 하주석, 넥센 김하성, 삼성 김상수, 롯데 문규현, LG 오지환, kt 심우준 등 8명이 경쟁한다.

3명이 선정되는 외야에서는 버나디나·이명기·최형우(이상 KIA), 노수광·한동민(이상 SK), 김재환·박건우(이상 두산), 이용규·호영(이상 한화), 이정후·임병욱(이상 넥센), 구자욱·김현근·박해민(이상 삼성), 민병헌·손아섭·전준우(이상 롯데), 김현수·이정우·이형중·채은성(이상 LG), 로하스(kt), 권혁동·김성욱·나성범(이상 NC) 등 25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한편 3일 시작된 골든글러브 선정투표는 7일 오후 5시까지 올 시즌 KBO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과 사정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